

 한국간호과학회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www.kan.or.kr	보 도 자 료	
	2024년 8월 2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쪽수: 7쪽	담당자 전상은 정책위원 책임자 유미 총무이사
	04364)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91 에르모소용산 1003호 Tel: 02-567-2529 / 02-567-7236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 한국간호과학회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 한국간호과학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함
- 전담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포괄해야 함**
- 간호사 진료지원 법제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자격요건 기준 명시가 필수임**

한국간호과학회(회장 김증임)는 한시적 ‘특별법’도 없는 진료지원활동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칭)전담간호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8월 19일 보건복지위 소속 3당 국회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현장 70여 명이 참석, 유튜브 중계로 1,200여 명이 동시 접속하였으며 현장 간호사의 관심을 반영하듯 8월 21일 현재 1,751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발제는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전문대학원 최수정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정책특별위원회 정책소위원장)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내 의료환경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병상 수에 비해, 의사

특히 수련의(인턴, 전공의)에 집중된 업무가 많고, 노동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는 의사들이 기피하고 수련의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법에 없는 (가칭)전담간호사를 운영해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가칭) 전담간호사가 문제없이 수행하였다면 이러한 업무는 의사-간호사 직역 간 중첩이 가능한 업무임을 의미한다.

- 올해 의료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시범사업을 간호협회에 위탁하여 자격요건과 업무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였다.

- (병원장의 책임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상 법적 보호 없이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불안감 속에 업무를 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경력 1년 미만의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어 환자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교육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인력부족과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전공의들의 교육과 수련 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는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간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진료지원 업무를 현 의료법의 간호사, 전문간호사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면, 기존 (가칭)전담간호사(과거 PA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흡수할 수 있는 특례 조건을 만들어 이들의 역할과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환자, 의사, 간호사 모두 서로 안전한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발제 후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분당서울대병원 한지은 전담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전문간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범위를 넘어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의사와 달리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토로하였다.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과 병원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미국 간호사들처럼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간호사가 더 늘어나고 합법적인 인력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는 큰 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간호사이고, 전문간호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사람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그 수준이 뭐라 하더라도 귀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처럼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의료기관장이 다 책임질 수는 없으며 전문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담간호사로서 일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직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의료공백 위기대응 TF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없는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및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가칭)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화와 그들이 제도권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격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자격체계는 공인된 기관의 공신력 있는 교육을 통해 정해진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박진희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한국간호과학회 JKAN 편집위원장)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제도권 안으로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2년 이상의 전문교육, 300시간 이상의 실습, 3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역량있는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이 전문분야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일을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법적 보장과 수가 반영 등 보상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시작된 사업으로, 법제화 없는 정책 실현은 법 규정과 임상현장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 특별법 마련 같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제화는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간호법에 업무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되며 전문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의 중심체계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지난 20년간 방치해 온 전문간호사제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간호계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고 하면서 의료법 제 2조에 간호사는 진료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간호법에 진료지원 업무를 넣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가진 실제적인 논제는 **의사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위임할 것인가?** 임을 설명하였다.
-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이 전담간호사를 자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임상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투입하자는 것이 주요한 점으로, 관리방안까지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2024년 8월 19일 (월) 오후 1:30 ~ 3: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 장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 위원

발 제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정책소위원회장)

토 론 사회 : 전상은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이사, 정책소위원회)
한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담간호사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의료공백 위기대응 TF 위원장
박진희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이사, 정책소위원회)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한지아 이수진, 김 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김선민

주관 | 한국간호과학회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후원 | 보건복지부 KAAPN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간호학회 KPMhn 한국평생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첨부 2. 정책토론회 사진



첨부 3. (자료집 중) 주요 슬라이드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무엇이 문제인가? 2024 국회토론회

예시: 입원환자 관리

의사	(다른 환자들을 위한) 외래진료, 검사, 시술, 수술 회진, 의료와 보건지도(사정, 진단, 계획, 치료, 평가 등) 관리				
시범사업	기록작성	검사 및 판독	시술	수술	진료계획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 ID를 사용하여 초안작성) 병력/신체검진	입원 처방	침습적 검사물 채취	결과설명	퇴원처방
간호사	(의사 ID를 사용하여) 의무기록작성, 처방입력	각종 동의서	협진의뢰서	처방(입력)	진단서(초안작성)
환자	입원	정맥주사	환자안전관리(육창, 낙상 등)	부작용 평가/보고	퇴원

과연 환자는 안전할까?

한국간호과학회 16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합리적 해결방안 2024 국회토론회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To be)

수행주체	경력간호사 (처치업무)	전문간호사	교수,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전공의 업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환자검진, 위임된 처방 침습적 처치 (골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등)	진단, 치료계획, 검사 등
인턴 업무	기술은 필요하나 비침습적 반복 업무 드레싱, 동의서구독 등		

한국간호과학회 32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합리적 해결방안 2024 국회토론회

현재 **향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전문간호사

간호사

업무특성

APN자격증

학위

경력

교육

시험

높은 수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상급실무

있음

없음

석사이상

학사이하

총경력 ≥ 9y (전담 ≥ 4y)

전담 < 4y

자격시험

전문간호사

간호사

반복술기 단순처치 단순설명

직무교육

전담간호사 코디네이터 설명간호사 교육전담 처치전담 술기지원 정맥주사전담 상처장부전담 etc

(확정된 간호업무)
임상경력 및 교육 훈련에 따라 특정 업무 수행

한국간호과학회 33